2023.0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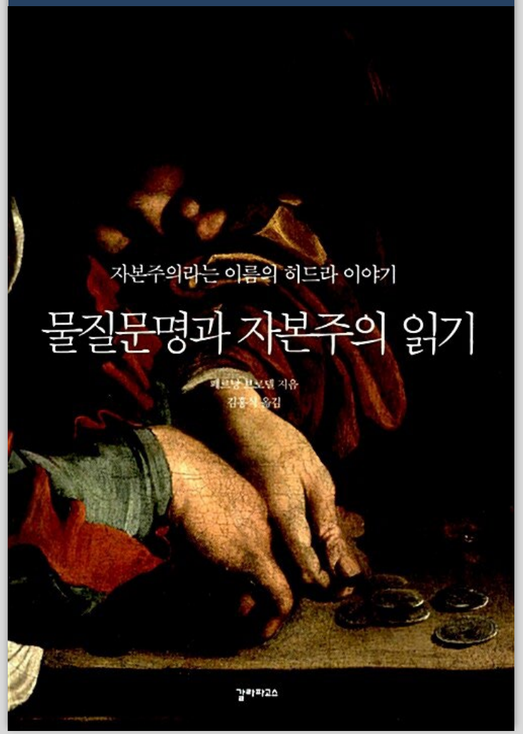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01 왜 문명적 전환인가?

1) 문명의 이행: 서구에서 아시아로?

Fernand Braudel



일상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서양 물질문명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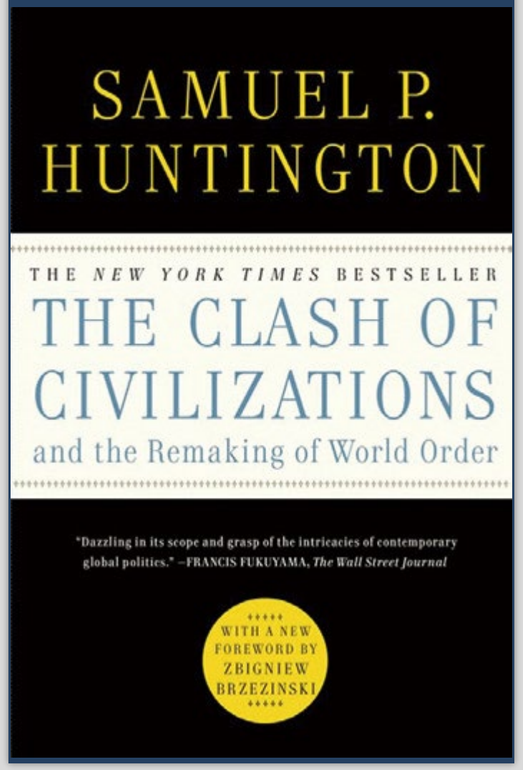
1) 자본주의 형성 이전의 지중해의 경제활동과 일상의 삶

2) 지중해 권역에서 서유럽으로의 이행은 자본주의 시대의 이행

3) 경제문명이 아닌 물질문명(의식주의 일상성)을 통한 서양문명의 변화과정에 주목

- “15세기에서 18세기 사이의 물질 생활은 거의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대단히 느리게 변화해 온 고대사회와 경제의 연장이다 ”
- 문명: 일상의 삶으로서 하층(물질생활)과 일상을 통제하고 조직하는 상층(시장경제 자본주의)의 교집합
- “시골없이 어떻게 도시를 이해하며, 물물교환없이 어떻게 화폐를 이해하겠는가? ”

Samuel Huntington



〈문명의 충돌〉(새무엘 헌팅턴)

1)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에서 말하는 탈냉전과 자유민주주의와 지본주의 승리론에 대한 반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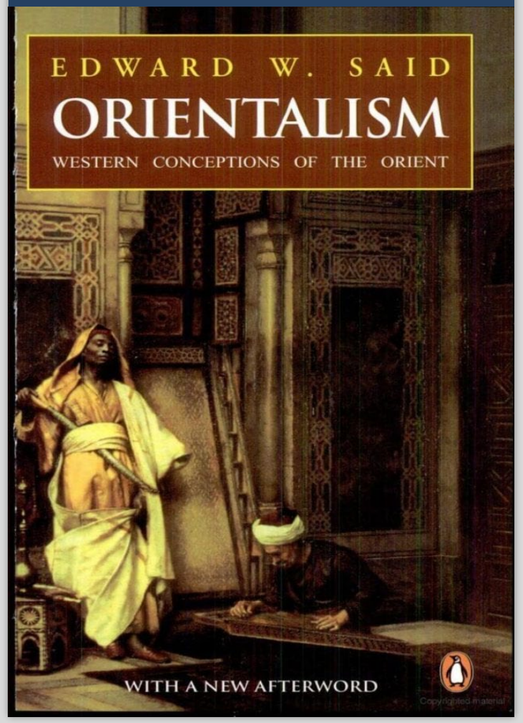
2) 사회주의 붕괴이후 국제관계의 갈등과 대립이 이념적인 대립에서 문명적인 대입으로 이행한 것으로 판단(기독교 문명 VS 이슬람 문명의 대립)

2) 냉전 이후 정치적 이념보다는 언어, 종교, 사회적 가치, 관습 등 문화적 요소들이 지배블록의 대립을 결정

3) 이슬람 문명의 위협으로 서양의 기독교 문명의 위기를 의식화 : 이슬람 문명에 대한 편협한 시각

- "더 거대한 충돌, 곧 범지구적으로 벌어지는 문명의 야만성의 " 진짜" 충돌에서 종교, 예술, 문학, 철학, 과학, 기술윤리, 인간애를 풍요롭게 발전시킨 세계의 거대한 문명들 역시 단결하거나 갈라설 것이다. 다가오는 세계에서 문명과 문명의 충돌은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 되며, 문명에 바탕을 둔 국제질서만이 세계 대전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어수단이다."

Edward Said



〈오리엔탈리즘〉(에드워드 사이드)

1) 오리엔탈리즘: 서양의 시각으로 동양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이나 편견이 하나의 고정된 이데올로기로 의식화

2) 서양의 문헌 속에서 발견되는 동양 혹은 아시아문화의 문화의 오류와 단순한 지식체계

3) 이슬람은 폭력적이고 아시아는 조용하고 정이라는 편견.

4) 오리엔탈리즘 안에는 서양의 동양 지배 이데올로기가 개입

- “동양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 다만 오리엔탈리스트들의 말과 담론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Homi Bhabha

〈문화의 위치〉(호미 바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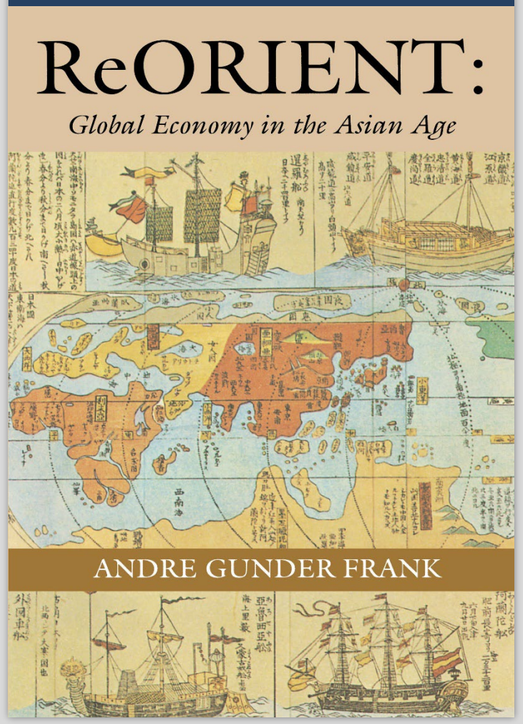
1) 식민지 모방(colonial mimicry)은 고정성에 근거하나 그 고정성은 양가적이고 혼종적이다.

2) 식민지 모방은 식민 주체의 분열을 일으키지만, 동시에 차이를 생산한다.

3) 식민지 모방의 차이는 위협을 생산한다: 동일하지만 아주 동일하지 않은, 다르지만 아주 다르지 않는

- “분열의 담론이란 자신의 언표적 양식에 담긴 합리적, 계몽적 주장을 위반하는 담론을 말한다. 식민지적 권위의 양가성은 반복적으로 모방으로부터 위협으로 전환된다. “

Andre Gunder Fr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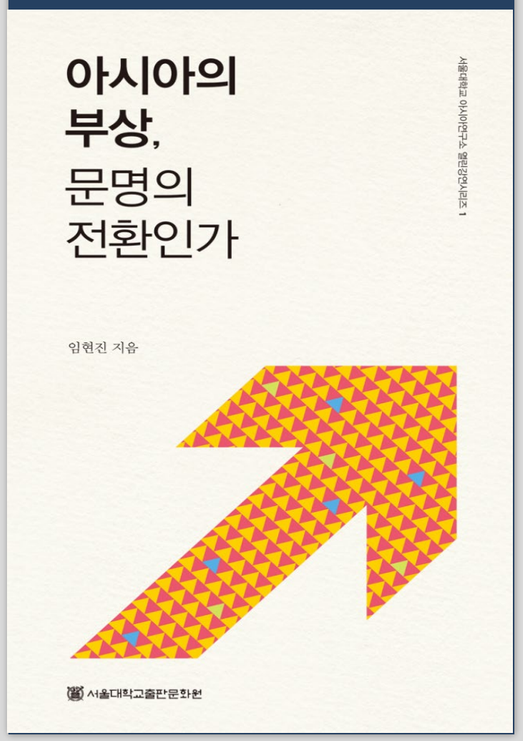


〈리 오리엔트〉(안드레 군더 프랑크)

1) 리오리엔트: 유럽 중심의 역사관, 세계관에서 벗어나 동양의 세계관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
2)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는 19세기 이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유럽중심주의적 관점에 의해 기술.
3)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사회과학이라는 것 역시 단순히 유럽중심적 발명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
4) 마르크스와 베버, 페르낭 브로델, 월러스틴, 새뮤얼 헌팅턴 모두 이 편협한 이데올로기의 한계에 갇혔다.

"역사적 과정 전체 또는 체제 전체의 변용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의 동시성을 탐색하고 연관시키는 시도 자체는 경험적 정보와 이론적 적절성의 미비로 말미암아 사실(史實)에 의해 시공간을 채우 지 못해 구멍이 숭숭 뚫려 있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의미 있게 내딛은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나 요즘처럼 전세계가 하나로 움직이는 역사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수립하기 위해 〃역사를 다시 써 야 하는 세대에게는 이것이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임현진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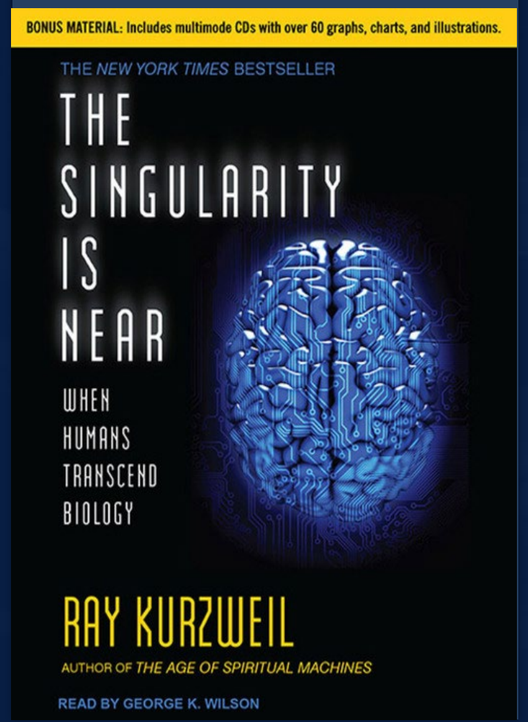


〈아시아의 부상, 문명의 전환인가〉(임현진 외)

1) 21세기에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면서 유럽, 북미 대륙과 더불어 근대 산업 세계의 3대 지주 중 하나
2) 1970년대 중반 덩샤오핑과 간디의 만남에서 공론화되었던 '아시아의 세기(Asian Century)'가 마침내 도래
3) 서구적 근대에 대한 대안으로 아시아는 인간-환경 친화적, 지속가능한 발전의 패러다임을 기대
4) 잠재력 높은 지역공동체의 조건을 갖춘 아시아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 사이의 협력이 필요
5) "새로운 아시아의 도래", "세계는 바뀌고 있다", "아시아가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부딪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어디로"

2) 과학기술의 전환: 특이점의 시대로 이행

Ray Kuezwe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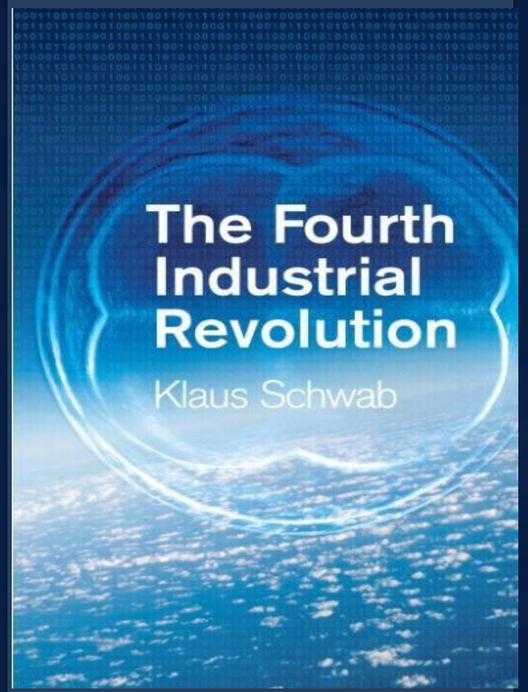


〈특이점이 온다〉(레이 커즈와일)

1) 2042년은 특이점의 시간. 인류-기계 문명의 새로운 미래가 도래.
2)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물학적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는 미래 인류의 모습을 전망
3) 특이점은 기술이 인간을 넘어 새로운 문명을 낳은 시점으로 정의
4) 특이점의 시간: 인간과 기계가 하나, 실재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 해체, GNR(유전공학, 나노기술,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 혁명.
5) 인간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은 인공지능의 도래로 문명은 생물학적 인간의 손에서 벗어남.

"우주 공간의 블랙홀이 제 사건의 지평선 쪽으로 물질과 에너지를 끌어당기며 그 패턴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에 닥쳐올 특이점은 성적인 것에서부터 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생활 양상을 점점 더 빠르게 바꾸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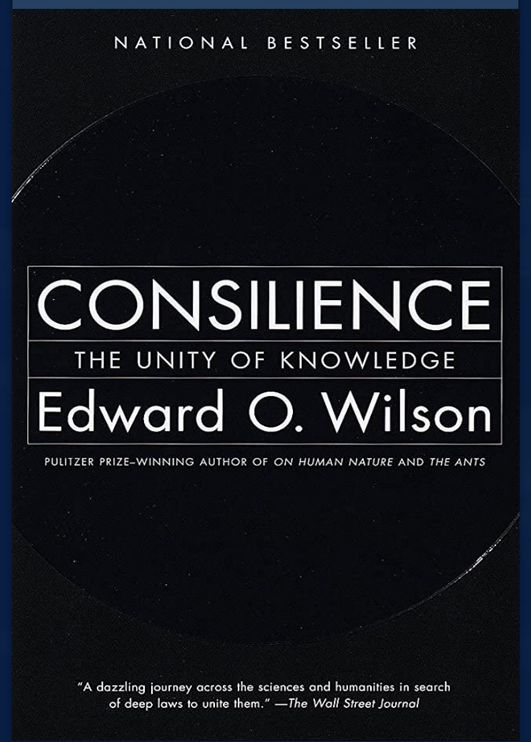
Klaus Schwab



〈4차산업혁명〉(클라우스 슈밥)

1) 2016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제기. 제4차 산업혁명은 규모와 속도, 범위에서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예상되므로, 인류가 마주하게 될 기회와 도전 과제
2) '제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공익을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
3) 제4차 산업혁명의 개요와 이 시대의 변화가 불러오는 주요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영역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 그리고 그 영향,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져올 변화를 잘 수용하고 형성하며, 그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실용적 방안과 해법을 제시.
4) 이 책의 궁극적인 취지는 과학기술결정론이나 경제결정론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의 양식의 변화(문화적 변화)에 주목.

Edward Wilson



〈통섭〉(에드워드 윌슨)

1) '인간 인식/지식의 대통합'.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지식들의 통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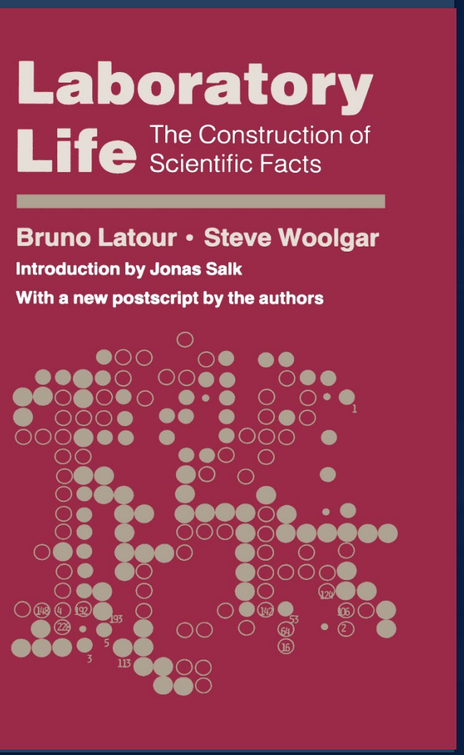
2)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지식 통섭

3) 책의 취지는 지식의 대통합이지만, 분석의 원칙은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 사례 예시들은 생물학적 환원론으로 귀결

"예술의 생물학적 기원 가설은 후성 규칙들이 실재하는지, 그리고 그 규칙들이 만들어 내는 원형들이 어떤 것인지에 의존한 하나의 작업가설이다. 이것은 자연과학의 정신 속에서 구성되어왔다. 즉 이 가설은 입증이나 반증이 가능하며 생물학의 다른 부분들과 통섭적이다. 그렇다면 이 가설은 어떤 식으로 검증되어야 할까?

한 가지 방법은 예술 속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제들과 그 밑바탕에 놓인 후성 규칙들을 진화론적 입장에서 예측하는 것이다. "

Bruno Latour



〈실험실 생활〉(브뤼노 라투르)

1) 과학적 사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 결과가 아닌 과정에 주목

2) 과학적 사실은 도구 의존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 실험 도구에 의존하지 않고 과학적 사실을 탐구하거나 구성하려는 시도는 불가능.

3) 과학 실험의 중심은 과학자(인간)가 아니라 엄청난 자본이 투입된 물적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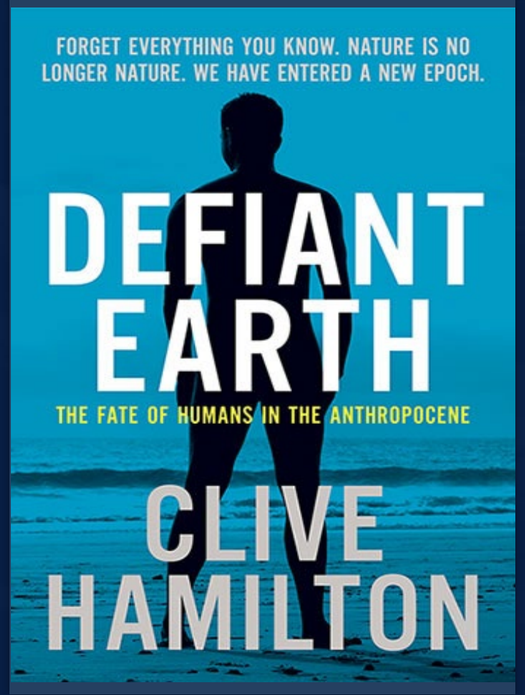
4) 과학적 사실은 과학자들의 토론이나 합의가 아닌 실험실의 수많은 설비가 산출하는 데이터로 구성

5) 과학이란 인간인 과학자와 물질인 실험 도구 간에 벌어지는 활동

"자금 지원 기관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기유맹 자신도 그저 다른 이들의 연구를 비판하는 사람으로 남았을 수도 있다. 이 새로운 전략은 프로그램의 비용을 올리는 효과와 규칙의 엄격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모두 지녔다. 전체로서의 신경내분비학자에게 훌륭한 것으로 인정받았고, 미국 정부기관에서 연구비를 조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전략은 일본, 체코슬로바키아, 잉글랜드의 경쟁자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버렸다"

3) 지구생태의 전환: 인류세와 지구생명

Clive Hamilton



〈인류세: 반항하는 지구〉(클라이브 헤밀턴)

1) 지구는 홀로세(Holocene)에서 인류세(Anthropocene)로 이행. 인간의 힘이 너무 강력해 지구 시스템 전체의 기능을 교란할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로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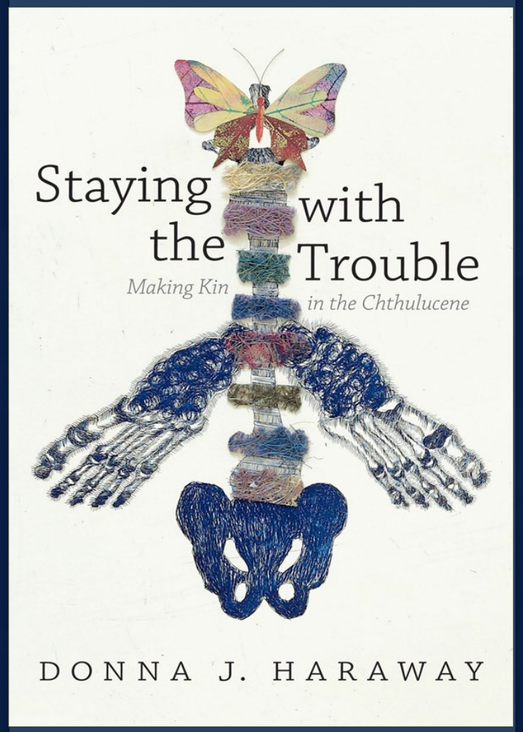
2) 인류세는 지구과정에서 가장 최근의 균열을 명명. 탄소 경제에 기초한 산업혁명이 결정적인 계기. 2차세계 대전 이후 자원 낭비. 인류 역사와 지구역사(planet)의 균열

3) 인류세는 처음으로 인류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의 공존을 가져왔다. 지구의 미래는 자연적인 과정에 의존할 뿐 아니라 인간의 행동의 의지에 의한 결정에 의존한다.

4) 이러한 변화는 생태적 관점의 재명명이 아니라 지구시스템이라는 과학적 연구가 새롭게 발견한 어떤 실체 과정의 균열로 봐야 한다.

“지구과학자들이 홀로세가 끝나고 인류세가 시작되었다고 믿는 주된 이유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급격한 증가와 그로 인해 지구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연쇄적인 영향 때문이다. 해양산성화, 생물종의 멸종, 질소순환의 혼란 등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힘들이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Donna Hara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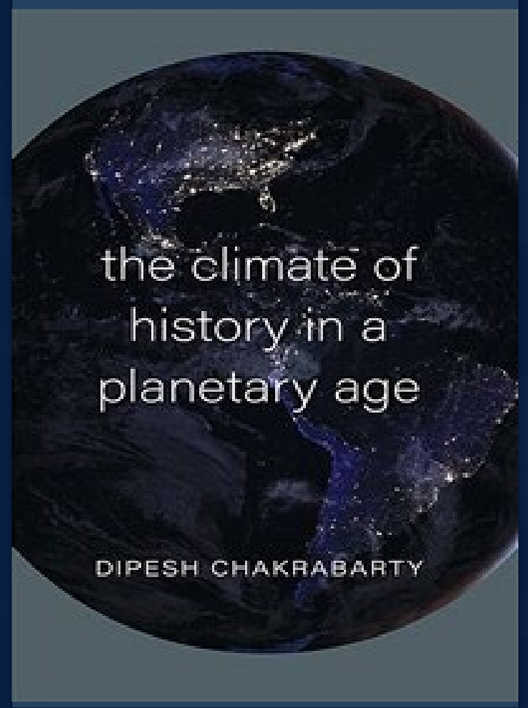


〈트러블과 함께하기〉(도나 해러웨이)

1) 망가져가는 지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트러블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자식이 아닌 친척(Kin)을 만드는 것"
2) 친척은 기존의 혈통 개념과는 다른 의미. 인간 종을 넘어, 위기의 생물종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관계를 친척으로 명명.
3) 친척은 인간이라는 범주를 넘어서는,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확장하는 개념.
4) 절박한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
5)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반려종, 수많은 친척들과 공-산共-産, 공-생共-生하는 삶의 양식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의 과제는 창의적인 연결망 안에서 친척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두터운 현재 안에서 함께 잘 살고 잘 죽는 것을 배우는 실천이다. 우리의 과제는 거친 파도를 잠재우고 고요한 장소를 다시 구축할 뿐만 아니라, 트러블을 만들고, 파괴적인 사건들에 강력한 응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Dipesh Chakrabarty



〈행성시대 역사의 기후〉(디페시 차크라바르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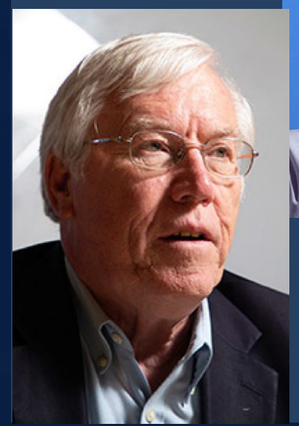
1) 현대 인류가 부딪힌 기후변화 문제를 역사 연구와 결합하는 시도.
2) 기후변화는 인류의 역사가 행성의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너무도 분명히 제시
3) 역사가들은 더는 물질적 현실과 비인간의 세계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에 진입.
4) 인간 중심의 지구화 역사로는 기후변화가 제기하는 인간적·정치적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없음.
5) 인류 역사와 행성의 길고 깊은 역사라는 불균형적 시간 척도 사이에서 새로운 이해의 방법을 모색
6)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성찰

문화의 대전환의 세 가지 의제들:

1) 문명의 이행: 서양에서 아시아로
2) 과학기술혁명의 이행: 휴먼에서 포스트 휴먼으로
3) 인류세로의 이행: 자연을 정복한 근대적 인간에서 지구생명과 공진화하는 탈근대적 인간으로

02 문화의 대전환: 문명전환의 징후로서 한류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류에 대한 해외 학자들의 견해



"한류는 미국의 문화제국주의에 맞설 수 있는 대안적인 문화적 흐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첸광신, 대만 교통대 교수)

"한류가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K-컬처가 가진 힘은 한국 전통에 이어내려오는 창조적 천재성을 전세계에 보여줌으로써, 가난과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한국인의 욕망에 기반"(Mark Peterson, 브리검영대 교수)

"한류, BTS를 모르고 21세기 시장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Sam Richard, 팬실베니아 주립대 교수)

한류에 대한 해외 언론의 견해(2010년 초반)

The New York Times

Le Monde

BBC NEWS

“미국의 10대 팝이 최고조에 있을 때조차도 결코 이만큼 생산적이지는 않았다. 한국 팝의 줄임말인 케이팝은 참여하는 뮤지션들이나 이들의 스타일이나 모두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환경을 갖고 있다. 상대적으로 어린 멤버들임에도 아주 노련한 활동을 보여주고, 젊은 음악을 만들어 낸다.(『뉴욕타임즈』 2011년 10월 24일자).

6월 10일, 11일 만사천명의 케이팝 팬들은 파리 제니트 극장에서 '샤이니', 'f(x)', '소녀시대'가 만들어 놓은 리드믹한 멜로디의 사운드에 매료되었다. 이들 보이그룹, 걸그룹들은 케이팝을 통해 국가의 열정적이고 다이나믹한 이미지를 재고하길 원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열성적인 도움에 힘입어 음악을 수출 상품으로 만들려는 프로덕션 회사들이 상상해낸 작품들이다(『르몽드』, 2011년 9월 11일자)

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음악 수출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미지와 경제 효과 때문에 고무되어 있다. 그러나 케이팝의 가장 성공적인 스토리는 소위 '노예 계약'을 등에 업고 이루어진 것인데, 노예 계약이란 연습생 출신 스타들을 작은 경제적 보상만으로 장기간 독점적 계약으로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BBC, 2011년 6월 14일자 보도)

한류에 대한 해외 언론의 견해(2010년 후반이후)

The New York Times

Le Monde

BBC NEWS

“한국이 제조업발전을 위해 일본과 미국 선진기술을 차용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감독 및 제작자들은 수년 동안 미국 할리우드 같은 선진적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문화를 연구해왔다. 여기에 한국적 감각을 더해 자신들만의 것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했다. 그러한 노력들은 지리적 장벽을 허문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의 등장으로 빛을 발했다. 한국문화가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이 전 세계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문화강국으로 단숨에 성장한 것이다.” (『뉴욕타임즈』, 2021년 11월 4일자 기사, 「BTS에서 오징어게임까지: 한국은 어떻게 문화적 거물이 되었나」)

“케이팝은 작년에 글로벌 음악차트를 지배했다. 그래서 많은 서양의 아티스트들이 팀업을 이루어 새로운 멋진 콜라보를 만들어보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팝 콜라보는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이미 지드래곤과 씨엘이 2011년부터 서양의 팝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BTS가 2017년 빌보드어워드 시상식에서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선보인 이래, 케이팝 가수들과의 콜라보는 서양 아티스트들의 재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BBC, 「케이팝: BTS, 블랙핑크, 엑소-당신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음직한 톱 서양-한국 음악의 콜라보레이션」, 2019년 7월 25일자 보도)

한류에 대한 해외 언론의 견해

Daily Mail

South China Morning Post

"우리는 이제 모두 K-팬이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한류는 이미 한국 정부가 수십 년간 기획해온 결과물이다" (〈*THE TIMES*〉)

"한국 음식, 패션, 음악, 한국어를 이제 영국에서도 흔하게 접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K-드라마를 보든, BTS와 같은 K-팝을 듣든, 저녁 식사 때 김치 한 쪽을 곁들이든 이미 한국 문화를 접한 것이다"(〈*Daily Mail*〉)

"한국 미디어 콘텐츠가 당신의 취향은 아닐지 모르지만, 서울에 기반을 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어쩌면 이제는 한류 붐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놀라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즐기면서 그 모든 효과에 대해 고민해 볼 때인지도 모른다"(*South China Morning Post*)

21세기 문명이행의 새로운 흐름으로서 문화 한류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상 수상

문화한류의 위상과 도전

쟁점	내용
문화 키워드	BTS, 블랙핑크, 기생충, 미나리, 리니지, 이날치, 오징어게임, 더 글로리, 조성진, 손열음, 임지영, 김기민, 박세은, 임윤찬
차별화된 경쟁력	온라인 디지털 환경,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문화 에너지
선도적 역할	아시아 문화의 거점, 디지털 글로벌 문화의 플랫폼, 대안문화 흐름의 문화연대와 협력

내용

✓ 2020년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 4관왕 수상, BTS 빌보드 뮤직어워드 3관왕 아메리칸뮤직어워드 올해의 아티스트 수상 등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은 전 세계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계의 리더 중의 하나로 부상했다. 열악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한국은 역대 최고 흥행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연한 나라이다. 세계적인 예술의 도시 파리의 극장들이 문을 닫은 사이에 서울은 〈노틀담 드 파리〉 뮤지컬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연하기도 했다.

✓ 한류는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만 아니라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쇼팽 콩쿨 우승, 바이얼리니스트 임지영의 퀸 엘리자베스 콩쿨 우승 등 순수예술 분야에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국악 그룹 이날치 밴드의 “범내려온다”를 담은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 유튜브가 조회수 3억뷰 기록, BTS 멤버 슈가의‘대취타’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2억 뷰를 기록하는 등 전통예술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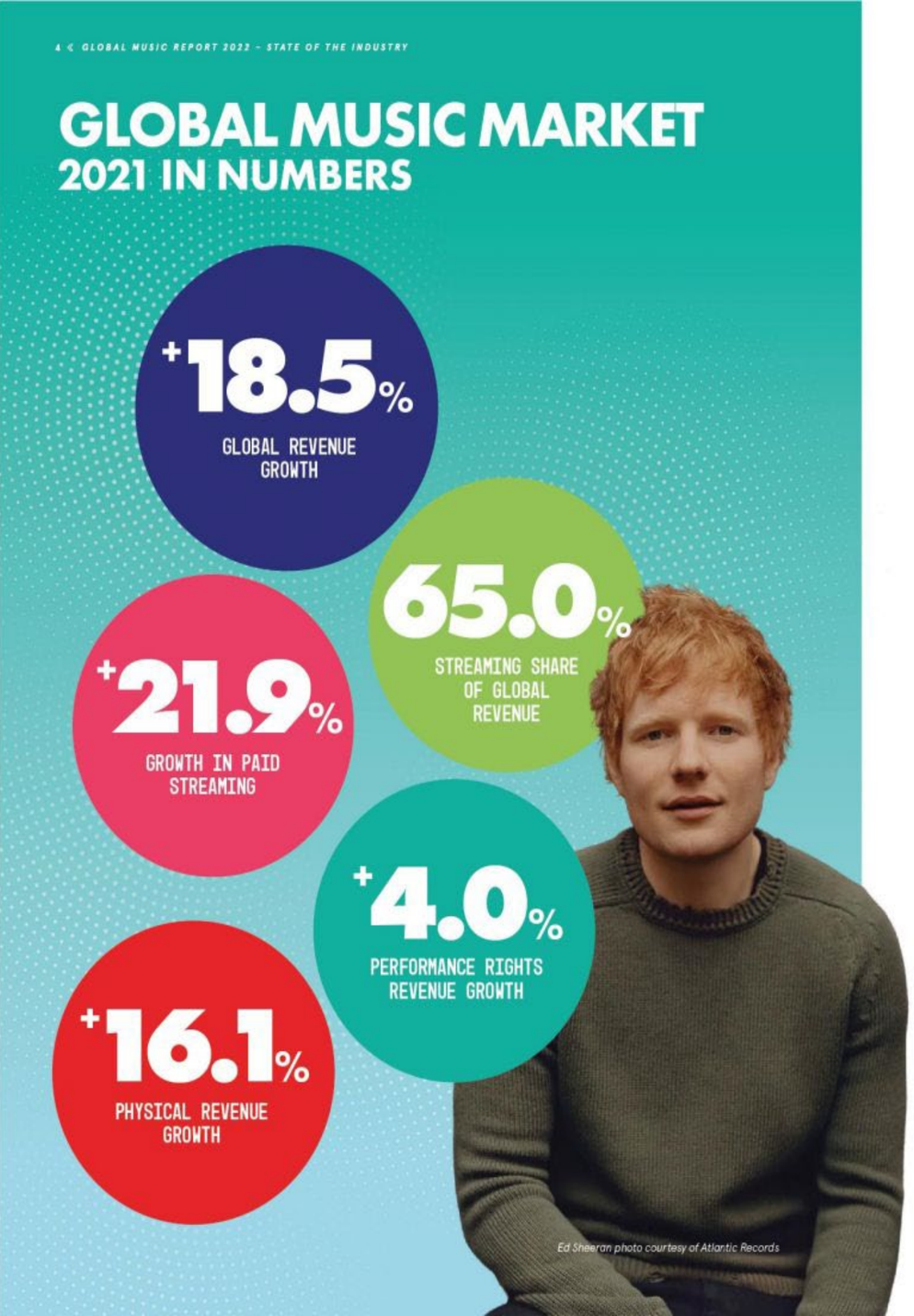
✓ 문화한류는 21세기 문명의 전환에 있어서 대안문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 문화한류를 통해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국과 유럽 중심의 문화트렌드에 변화를 주도할 수 있으며, 안전한 방역과 탁월한 온라인 디지털 환경과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한국의 문화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글로벌 문화트랜드의 아이콘: 케이팝을 어떻게 볼 것인가?

ifpi | representing the recording industry worldwide

GLOBAL MUSIC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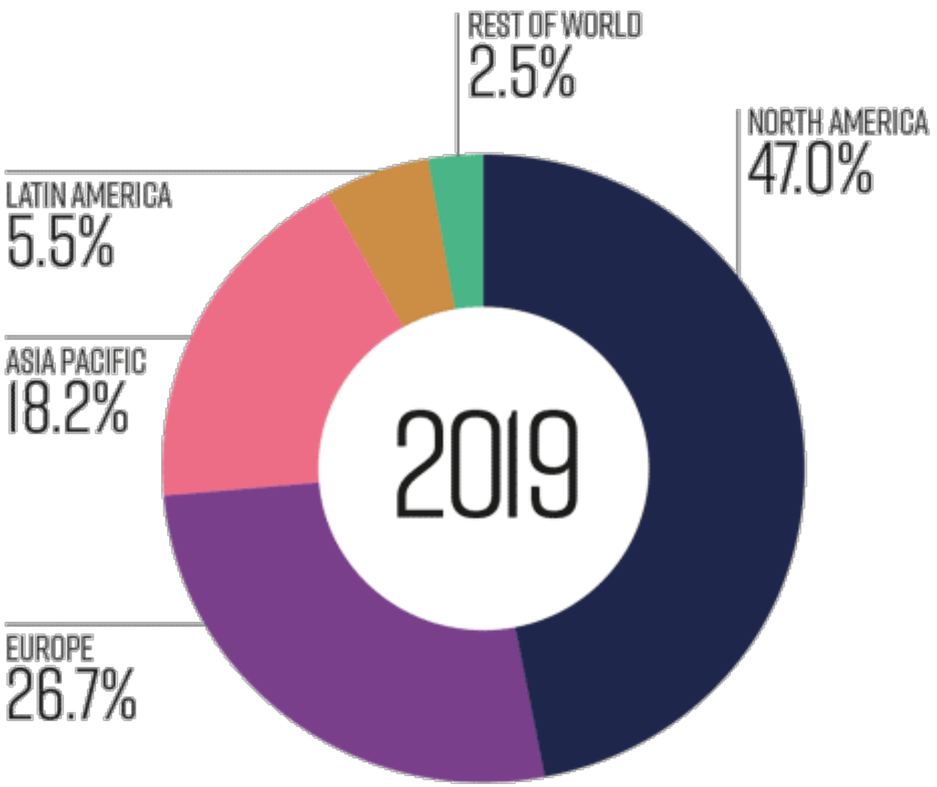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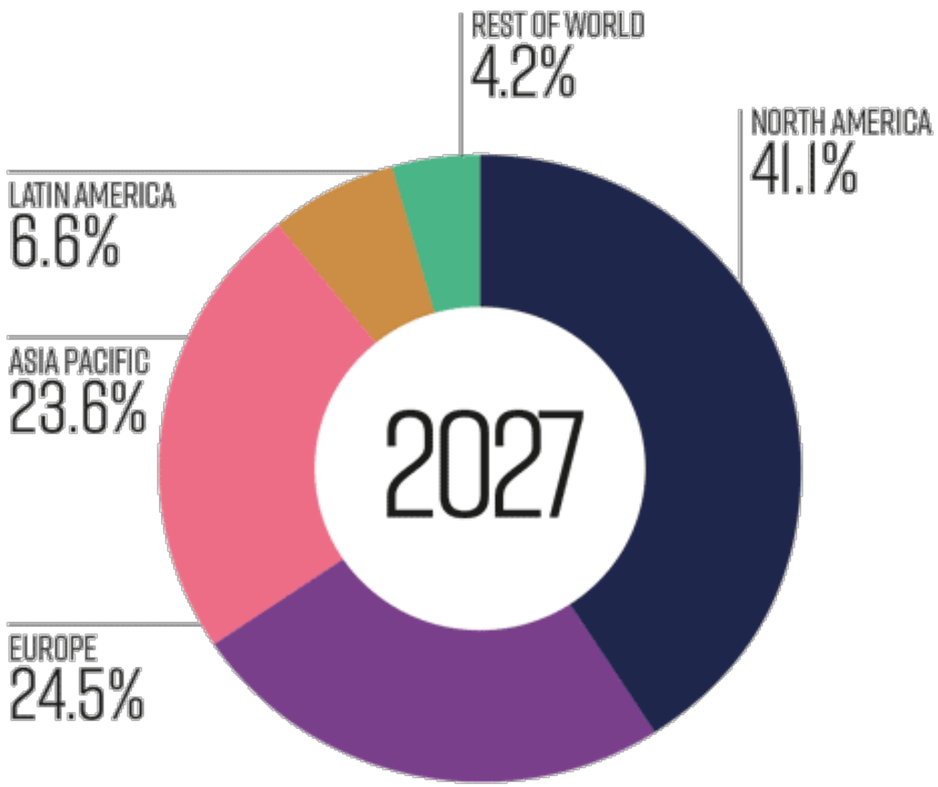


1) 전년대비 글로벌시장 전체 수익 18.5% 성장
2) 글로벌 시장 수익의 65%가 스트리밍 공유서비스
3) 저작권 지급 스트리밍 시장 21.9% 성장
4) 공연저작권 수익 4.0% 성장
5) 피지컬 음반 수익 16.1% 성장

최근 음악산업의 동향과 주요 정책과제

글로벌 뮤직 스트리밍 권역별 수익 점유율(2019-2027)





<2022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동향분석 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

2021년 기준 한국콘텐츠 산업 규모는 136조 3,559억 원으로 추정 전년대비 6.3% 증가. 이 중 음악산업의 2021년 연간 기준 매출액 규모 추정치는 6조 356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4.8% 증가

1) K-pop 그룹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산: BTS, 블랙핑크 월드투어, 뉴진스, 르세라핌, 트레저 등 4세대 아이돌의 선전. 대형 연예기획사 외에 중소 기획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KQ엔터(에이티즈), MLD 엔터(모모랜드)

2) 엔데믹 시대 확산되는 K-pop 글로벌 콘서트: BTS LA투어, 블랙핑크 월드투어 ‘BORN PINK’

: 26개 도시, 36회 공연 150만명 관객, TWICE 미국투어, ATEEZ 월드투어.

케이팝 그룹들 세계적 뮤직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활동(Coachella)

앨범 판매량 증가: 2022년 상반기 음반판매량은 3,495만장으로 전년대비 34.6% 상승

(BTS, NCT, SEVENTEEN, TXT 등)

4) 음원 플랫폼 시장의 다변화: 2022년 6월 시장 조사에 따르면, 음원 서비스를 가장 많이 들은 플랫폼은 ‘멜론’으로 한달 사용자가 649만명, 2위는 유튜브 뮤직으로 586만명으로 집계 유튜브뮤직 사용자 수가 전월 대비 2배로 급증

5)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음악시장의 영역이 확대:

휴앱콘텐츠가 만든 가상아이돌 ‘유나’ 메타버스 콘서트 개최. NFT 산업에 본격 진출

(YG엔터, FNC 엔터 NFT 시장 진출)

6) MZ 세대의 새로운 음악이용형태: SHORT FORM 소비의 증가(엔하이픈, 뉴진스 등), LP를 소비하는 MZ세대:
2022년은 전년도 대비 LP 제작이 2.5배 증가, 로파니(Lo-Fi) 음악의 확산(아날로그적 감성)
**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카카오+SM현경영진 VS 이수만+하이브의 경영권 분쟁)

03 문화의 대전환: 차이와 공존을 위한 문화의 종다양성 시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의 대전환

UNESCO ResiliArt movement

문화의 대전환

전환의 내용	문제의식
인식의 전환	문화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삶의 양식의 총체이다. 문화는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모든 이를 위한 것이다.
가치의 전환	문화의 가치는 돈과 숫자로 환산될 수 없는 한 시대 국가와 개인 그리고 사회의 의식과 생활수준을 결정한다. 문화의 교육적, 경제적, 생태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시대의 전환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문화의 생산과 소비, 창작과 향유, 창조와 기술의 새로운 융합을 위한 국가문화정책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내용

✓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인들에게 큰 고통과 공포를 가져다 주었다. 직장을 잃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세계 시민들은 감염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집단 우울증에 빠져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극장, 미술관, 도서관이 문을 닫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화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문화가 안전보다 우선할 순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안전이 문화를 지배할 수는 없다.

✓ 그 이유는 문화는 인류와 인간의 근본이고, 지금 힘들고 지친 사람들의 일상을 위로할 수 있고, 집단 우울증에 빠진 우리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창조적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한 문화적 가치와 역할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에게 새로운 삶의 전환을 요구한다.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는 문화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의 대전환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문화의 전환: 차이와 공존을 위한 문화 종다양성의 시대로

문화의 대전환을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 구상

1) 아시아문명의 헤게모니: 한류, 볼리우드(인도), 이슬람 문화열풍, 포스트중동(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동남아시아 팝문화의 부상.
2) 과학기술혁명 (AI, Robotics, IOT, Metaverse) 으로 인한 인간 없는 테크노 컬처& 아트의 부상
3) 기후위기, 인류세 시대의 인간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지구생명과 공진화하는 문화형성
4) 대안적 글로벌 문화로서 한류: 문화자본과 문화민족주의 논리를 넘어서는 상상: 미국문화의 아류인 “문화적 미국화”가 아닌 차이를 생산하는 “문화다양성”

** 문화의 대전환이란 “인간중심-서양중심-자본중심” 문화에서 “지구생명-권역문화-가치중심”의 문화적 종다양성의 통합적인 구상이라는 점에서 문명사적 전환으로 인식

문화의 전환: 차이와 공존을 위한 문화 종다양성의 시대로

문화의 대전환을 위한 문화예술정책의 통섭

1) 문화와 아시아: 탈냉전시대 아시아 문화의 연대와 협력(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과의 문화교류와 협력, 남북문화협력)
2) 문화와 경제: 콘텐츠 R&D, 문화경제 GDP 확대, Contents Diversity
3) 문화와 돌봄: 노령화 시대 문화 돌봄(생활예술), 정신건강과 문화치유, 생태주기별 국민 문화생활여가 확대(국민의료비 절감)
4) 문화와 생태: 기후위기 시대 문화의 대안(재생에너지 활용, 공연예술의 리사이클링 플랜, 일회용품 배제하는 생태적 페스티벌, 지구환경 생태위기를 표현하는 예술창작의 활성화)
5) 문화와 테크놀로지: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술창작의 새로운 가능성 탐색. AI, Hologram, Robotics, Bio-tech, Data Arts, 디지털 저작권의 창작자 권리
6) 문화와 교육: 예술교육의 보편적 실현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술교육